현대소설연구(제92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3.12.92.145

대화적 의식으로서의 이청준적 '쓰기'와 소설의 미학

-『당신들의 천국』을 대상으로

이 성 아*

요약

본고는 바흐찐의 '대화' 개념에 주목하여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에서 드러나는 미학적 응전을 읽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흐찐은 소설 속 인물로 하여금 능동성을 지니게 하는 핵심 요소로서 대화를 제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대화가 단순히 인물들 사이에 오가는 말이 아닌, 존재의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바흐찐에 의하면 의식이란 다른 의식들과의 마주침을 통해 끊임없이 형성되는 것으로, 대화는 이러한 과정 전체를 포함한다. 이처럼 의식을 대화적인 것으로 볼 때, 소설은 여러 주체들이 미결정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다성악적 연주가 된다.

이청준의 '쓰기'는 이러한 대화의 개념과 관련하여 새롭게 검토될 수 있다. 그에게 있어 '쓰기'란 인물들의 욕망을 보존시킴으로써 의식의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장치이다. 즉 그것은 완결불가능성으로 인해 계속해서 추구될 수 있는 어떤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인물들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구성된 『당신들의 천국』에서 인물들은 이 '쓰기'를 통해 작가적 의도를 벗어나 한 명의 능동적 주체가 된다. 그리고 이 주체들은 구체적으로 육화된 이데아로서 발화하며 영원성으로 확장되는 갈등의 조화를 연주해낸다. 이로써 『당신들의 천국』은 반복되는 생활적 실천만이 자유와 사랑을 어긋남 없이 행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단순히 소설의 내용을 통해서가 아닌, 그것의 내재적 형성 과정 자체로서 보여준다.

주제어: 바흐찐, 대화적 의식, 이청준, 쓰기, 당신들의 천국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목차

1. 들어가며: 미학적 대응과 대화의 문제
2. 바흐찐의 ‘대화’와 이청준의 ‘쓰기’
3. 『당신들의 천국』에서 드러나는 ‘쓰기’에 대한 ‘미학적’ 검토
4. 나가며: 존재 조건으로서의 대화와 소설의 미학

1. 들어가며: 미학적 대응과 대화의 문제

한국사회에서 1960년대는 오늘의 기원이라 말해지는 시기로, 당대에 활동했던 작가들은 ‘자기세계’ 구축의 문제에 몰두했다. 이들은 4.19를 통해 처음으로 세계 구성적 개인을 체험했으나 5.16으로 인해 자유의 불가능성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자기만의 이념형을 만드는 것이 이들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60년대 문학 텍스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위와 생활, 그리고 현실 수리의 내적 논리와 간극의 이행 문제”[1], 즉 윤리적 시민의식과 경제 발전, 자유와 빵이라는 대립 속에서 개인의 내면에 일어나는 첨예하고 구체화된 갈등이다. 다시 말해 해당 시기 소설 속 인물들은 60년대라는 시대적 불안이 내면화되어 있는 존재들인 것이다.[2] 이때 인물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대립은 그들이 작가의 사상이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소모되는 객체가 아닌, 갈등

1) 조강석, 「1960년대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시민적 윤리와 대중적 욕망의 교환」, 『현대문학의 연구』 50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18면. 해당 논의에서 조강석이 1960년대 문학을 바라보는 렌즈로 삼는 ‘정동(affect)’은 이항대립들의 내적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본고의 ‘대화’와 ‘쓰기’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한다.

2) 이청준과 함께 가장 60년대적인 작가라 불리는 김승옥이 ‘감수성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되는 것을 이와 관련하여 볼 수 있다. 당대 자본주의적 욕망이 인간의 일상을 침투해오면서 문학은 더 이상 주체를 파악함에 있어 역사에 대한 거시적 탐구가 아닌, 개인의 욕망과 일상성을 비롯한 미시적 탐구를 수행해야 했고, 이것이 새로운 감수성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속에서 마구 흔들리며 자기세계를 수립해나가는 주체임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6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라 할 수 있는 이청준의 소설에서는 4.19세대가 지켜내고자 했던 자기세계의 비정상성에 대한 고민이 '질병'이라는 테마를 통해 제시된다.[3] 그리고 1976년 간행된 장편 『당신들의 천국』에서는 자기세계의 정당한 수립에 대한 앞서의 고민들로부터 이청준이 맺은 하나의 결실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는 소설 속에서 개인과 현실의 갈등이 아닌, 인물들 간의 첨예한 대립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따라서 『당신들의 천국』은 이러한 대립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대화'의 문제에 주목하여 분석된 바 있다.[4]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화'라는 것을 말 그대로 인물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대한 이청준의 대응이 어떻게 '미학적'인 것인지를 충분히 규명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5]

여기서 '미학적'이라는 것은 랑시에르가 정의하는 미학적 체제와 관련된다. 랑시에르에게 있어 미학은 원인과 효과 사이의 그 어떠한 정해진 연결과도 단절함으로써 기존의 지배체제에 불일치를 전경화하는 것을 의

3) 이청준의 등단작 「퇴원」(1965)과 대표작 「병신과 머저리」(1966)의 중심인물은 '환부를 알지 못하는 환자'로 그려지며 「조율사」(1967년 완성, 1972년 연재)의 화자는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다. 이외에도 「아이 밴 남자」(1966)의 사시를 가진 누이, 「줄광대」(1966)의 다리를 저는 여자 등 병을 앓는 주변 인물이나, 「무서운 토요일」(1966)에서의 불임, 유산 등의 소재가 그의 작품에서 반복하여 등장하며 중심인물의 세계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4) 김근호, 「이청준 소설 『당신들의 천국』의 소통 윤리」, 『구보학보』, 구보학회, 2015. 박다솜, 「'대화 불가능성'을 표지하는 대화의 서사적 가능성-이청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45집, 한국문학과 예술, 2023.

5) 박다솜은 '관념의 인물화'를 이청준 소설의 특징으로 제시하며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이 추상적 객체가 아닌 구체적 주체임을 밝힌다. 그러나 그는 이로 인해 인물들이 진정한 대화에 도달할 수 없으며, "그래서 각 인물의 발화는 절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정리한다. 본고에서는 '대화'가 가지는 근원적 의미에 주목하여 '관념의 인물화' 자체가 이미 대화라는 것과, 이를 통해 인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박다솜, 위의 글, 59면.

미한다.[6] 이러한 맥락에서 소설이 보여주는 미학적 대응이란, 그 내용에 작가의 세계상이나 사회적 담론과 같은 정해진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읽어내는 작업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완결되는 것이 아닌, 소설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형성의 과정에 주목할 때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미학적' 대응을 읽어내고자 하는 시도는 소설을 하나의 내적 실재가 되게 한다. 즉 『당신들의 천국』에서 드러나는 '미학적' 대응을 읽는다는 것은 관념을 내면화한 인물과, 그 인물들 사이의 갈등에 주목하여 그들이 어떻게 소설 속에서 하나의 주체로서 기능하게 되는지를 분석한다는 것이며, 이로써 소설이 그 자체로 능동적 사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설의 내용이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화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라 보았던 바흐찐(Mikhail Bakhtin)의 논의를 참고해볼 수 있다.

소설 언어의 확장성에 주목한 바흐찐은 소설 속의 인물이 '대화'를 통해 작가의 손을 벗어나 능동성을 지니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말하는 '대화'라는 것이 인물들 사이를 오가는 말을 포함하여 인간의 존재 조건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대화'를 근원적인 기능으로서 고찰할 때, 이청준의 '쓰기'를 이와 관련지어 봄으로써 그의 소설에 대한 해석을 확장시켜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바흐찐의 '대화' 개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신들의 천국』 속 인물들이 어떻게 한 명의 주체로서 기능하며 현실에 대한 새로운 미학적 대응을 보여주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7]

6)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옮김, 『해방된 관객』, 현실문화, 2016, 81면.

7) 『당신들의 천국』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 중에는 본고의 관점과 같이 소설 속에서 '주어진 의미'가 아닌, '의미의 형성 과정'에 주목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임환모, 「이청준 소설의 알레고리적 욕망-『당신들의 천국』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93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1. 김소륜, 「이청준 소설과 '정동(affect)'의 글쓰기-198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94권, 국제어문학회, 2022. 이현영,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서사전

2. 바흐찐의 '대화'와 이청준의 '쓰기'

1) 대화적 관계와 의식의 주체

의식의 형성 과정으로서의 대화에 대한 논의는 바흐찐의 저서 『도스또예프스끼 시학』[8]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해당 저서에서 바흐찐은 어떻게 도스또예프스끼 소설 속 갈등하고 대립하는 인물들의 사상이 최종적으로 다성악적 통일성을 실현하게 되는지 분석한다. 그에 의하면 이 다성악적 폴리포니의 세계란 온갖 모순과 분열이 조화를 이루되 융합되지는 않으면서 다차원성이 영원성으로 확장되는 세계이다. 바흐찐은 작자와 인물, 그리고 인물들 사이의 대화적 관계가 이러한 폴리포니의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 논의한다. 대화적 관계가 부재하는 모놀로그적 형식의 소설에서 인물이 특권적 위치에 놓인 작자에 의해 완결되는 것과는 달리, 디알로그적 형식에서 인물은 작자와 동등한 권리를 지니며 자유를 실현함으로써 미완결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9]

소설 속 인물을 작자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대화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흐찐이 대화를 통해 인물의 '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도스

략 연구-삽입서사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9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3.) 이들 연구는 다성성, 상호텍스트성, 정동 개념 등을 핵심어로 하여 본고의 참조점이 되는 연구목적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비평에 있어 내용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여 그것을 현실의 문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하거나, 텍스트 자체의 정동이 아닌 인물이 느끼는 정동을 분석하거나, 혹은 '의미의 형성 과정'에 대한 주목을 '작가의 의도'로 읽는 등, 결과적으로 소설이 부차적인 재현으로 읽히거나 작가가 작품에 대한 권위자로 남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8) 1929년에 초판이 간행되었고 이후 소설의 장르적 원천에 대한 논의가 추가된 개정판이 1963년에 발간되었다.

9) 바흐찐은 소설 언어의 특성을 규정하는 그의 논문 「소설 속의 담론」(1935)에서 언어를 독백적인 것과 대화적인 것의 두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전자는 구심적 힘들의 영향 하에서 발전하는 자기지향의 통일적인 언어이고, 후자는 원심적 힘들에 의해 형성되며 탈중심화를 도모하는 타자지향의 언어라 설명된다. 여기서 바흐찐은 후자를 소설적 언어라 정의한다. M. 바흐찐, 전승희 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a. 참조.

또예프스끼 문학의 핵심으로 둔 것에 주목해볼 수 있다.

> **다성악 소설은 전체가 극도로 대화적이다.** 소설구조의 모든 요소들 사이에는 대화적 관계들이 존재하고 있다. (…) 정말로 대화적 관계들—구성적으로 표현된 대화의 응답들 속에 있는 관계보다 훨씬 더 넓은 현상들—은 모두 인류의 언설과 모든 인간 생활의 표명과 그 관계들, 즉 일반적으로 중요성을 띤 의미 있는 모든 것을 꿰뚫고 들어가는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 도스또예프스끼는 도처에서,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인간 삶의 모든 표출 속에서, 대화적 관계들을 청취할 수 있었다. 거기에서 인식이 시작되고 그의 대화도 시작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소설의 외면적이고 내면적인 부분들과 요소들의 모든 관계들은 도스또예프스끼에게서 대화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설의 전체를 **커다란 대화**로서 축조해 놓았던 것이다.[10]

> 도스또예프스끼에게 있어서 누구의 것도 아닐 수 있는—자신 속에 있을—관념, 사상, 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 도스또예프스끼의 세계 속에 있는 의식은 그것의 생성과 성장의 길에 놓여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그 의식은 통시축에 있지 않고(역사적이지 않고 : 역주) 다른 의식들과 **나란히** 있는 공시축에서 존재하므로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관념에, 그리고 그 관념 속에 내재하는 논리적 발전에 집중할 수 없으며, 다른 의식들과의 상호작용으로 빨려들어 간다.[11]

대화적 관계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 표출되는 것이며 이로부터 인식을 개시하는 것이다. 바흐찐은 도스또예프스끼의 창조적 시야에 있어 매우 중대한 특성은 '생성'이 아니라 '공존'과 '상호작용'임을 강조한다. 그의 맥

10) M.바흐찐, 김근식 옮김, 『도스또예프스끼 詩學: 도스또예프스끼 창작의 제문제』, 정음사, 1988b, 63면.

11) M.바흐찐, 위의 책, 49-50면.

락에서 생성이란 작자에 의한 총체성을 향해 가는 변증법적 연쇄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식'은 이러한 생성이 아닌, 다른 여러 의식들과의 대화를 통해 언제나 형성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의식이란, 역사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거나 개인의 내면에서 단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동시성은 영원성으로 치환되어 '화합되지 않는 목소리들의 영원한 조화이거나 그 목소리들의 그칠 줄 모르는 끝없는 논쟁으로 전개'[12]된다. 이로써 도스또예프스끼의 소설 속 인물들은 의식을 가진 자들로서 강조되며 그의 소설은 '전체가 극적으로 대화적'이라 말해지는 것이다.

바흐찐에 의하면 도스또예프스끼에게 있어 형상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물이 아닌 인물의 의식이다. 이는 작자가 인물을 형상화할 때, '그는 누구인가'를 묻는 대신, '그는 그 자신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으며 그에게 세계는 어떻게 의식되는가'를 문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물의 의식이 문제가 될 때, 작자가 인물에 대해 외부로부터 완결지었던 모든 것들은 이제 인물의 자의식을 구성하는 재료가 된다. 그리고 이로써 인물은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정되었던 것들로부터 뛰쳐나와 스스로의 의식에 대화적으로 침투함으로써 미완결성의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인물의 능동성과 미완결성에 대한 바흐찐의 이러한 논의는 현상학적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세계는 선험적으로 존재하고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각의 주체와의 소통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제시된다.[13] 그리고 이처럼 '나'는 감각의 주체인 동시에 감각

12) M.바흐찐, 위의 책, 48면.

13) 예컨대 '시간'이나 '공간'과 같은 것은 경험의 조건으로서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이러한 조건들은 현실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선험적이지만, 동시에 경험을 통해 그러한 조건들의 존재 사실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기도 한 것이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 대해서는 김종현, 「메를로 퐁티의 몸과 세계 그리고 타자」, 『범한철학』 제30집, 범한철학회, 2003. 참조.

되는 대상으로서 외부 세계로부터 신체적 이미지가 조형될 때 비로소 존재한다는 것이 바흐찐 사유의 근간을 이룬다. 즉 인물은 작자에 의해 그 형상이 부여되지만, 그것에 대하여 능동적인 응답성을 지니며 이를 통해 세계를 향해 열리고 세계와 소통하면서 미완결성의 자유를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도스또예프스끼의 소설은 동등한 권리를 지닌 의식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사건들로 가득 찬 공간이 된다. 자유로운 한 명의 인물과 같은 세계 속에서 나란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의식을 지닌 자로서의 능동적인 인물들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존하는 의식에 대한 논의로부터 이데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볼 수 있다. 바흐찐은 개인의 주관적 의식으로서의 이데아를 "두 개 혹은 몇 개의 의식이 대화적으로 만나는 점에서 연출되고 있는 **살아있는 사건**"[14]이라 정의한다. 즉 대화적 관계를 통해 전개되는 폴리포니 소설에서는 새로운 이데아가 탄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바흐찐의 논의가 보여주는 중요한 점은 이 이데아라는 것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언어로 구성된 것이자 인물에게 육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점이다.

> 이데아는 타인의 이데아들과 본질적인 대화적 관계를 맺을 때만이 살기 시작한다. 즉 이데아가 형성되고 발전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언어표현을 하고 그것을 갱신시키면서 새로운 이데아들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사고는 타인의 목소리에서, 즉 타인의 말로 표현된 의식에서 구현된 타인의 사고와 살아있는 접촉을 할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사고가, 다시 말해 이데아가 되는 것이다.[15]

14) M.바흐찐, 위의 책, 129면.

15) M.바흐찐, 위의 책, 동일 면수. idea가 '관념'으로 번역된 것을 본고에서는 원문 그대로 이데아라 표기한다. 이는 '관념적'이라는 용어가 '추상적'이라는 의미로서 부정적으로 사용되며, 바흐찐의 맥락에서 개인적 세계관의 집약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이데아'의 의미를 충분히 내포하지 못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폴리포니 소설에서 한 명의 인물은 그 고유한 경험과 의식, 목소리를 통해 하나의 구체적인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스또예프스끼에게 있어 진리라는 것 또한 규범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인격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16]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가 구체성을 띤다는 것은 어떠한 이념의 담지자로서의 인물이 작가의 세계상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분명하게 제시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소설 속 인물들이 세계와의 대화적 교류를 통해 매순간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의식의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작중인물의 자유란 그 자체의 내적 실재를 궁극까지 전개해나가기 위해 작자의 구상을 추동하는 동인이라 할 수 있다. 이데아로서의 인물은 타자의 시선으로 완결된 형상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그를 계속해서 추궁하고 도발하는 것만을 통해 형상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주체 형성 장치로서의 쓰기

바흐찐에게 있어 '의식'이란 대화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작동시키는 동인으로 기능하며 영원한 미결정성의 폴리포니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가 된다. 이러한 '의식'의 의미와 기능에 주목하여 이청준의 소설에서 드러나는 '쓰기'의 문제를 해석할 때, 그의 소설에서 현실에 대한 대응이 내재적으로 구축되는 것을 파악해볼 수 있다.

이청준의 소설에는 작중인물이 쓴 글이 삽입됨으로써 격자소설의 형식을 띠거나, 혹은 글쓰기에 실패하는 인물 유형이 제시되는 것을 통해 '쓰기'의 문제를 재고해보게 한다.[17] 이청준은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이해

16) 바흐찐은 작가의 말이 작중인물이 살아 숨 쉬는 세계를 구성하는 것을, 종교적 관점에서 신의 말씀이 만물을 생성한 것과 빗대어 논의한다. 이처럼 그의 대화성이라는 개념은 이론적인 것이 아닌, 인격적 접촉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시된다.

하는 한 방식으로서 늘 대립항이라는 것을 설정"했으며 그 사이에서 "삶의 본질을 납득할 어떤 접점 같은 것을 찾아보려고 노력"[18]했다고 자신의 작가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처럼 대립되는 것들 사이에서 자유의 질서를 추구하는 자신의 의지를 단순히 작중인물의 성격적 특성으로 규정짓거나 줄거리를 구성하는 요소로 사용하는 대신, 소설 속 인물을 능동적 의지의 주체가 되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유를 추구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때 그 방법이 되는 것이 인물들의 '쓰기'인 것이다.[19]

이청준적 '쓰기'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소설에서 드러나는 '글'을 욕망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권오룡의 논의를 참조해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이청준의 초기 소설에서 제시되는 60년대적 인간형은 4.19와 5.16의 동시적 체험으로 인해 "의식과 욕망 사이에서 분열되고 파편화된 존재"[20]로 나타난다. 이때 욕망을 철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것을 실현시킨다는 것 또한 허상일 뿐으로 이는 결국 전락으로 귀결되고 만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 속에서 인물들이 쓰는 '글'은 "초월적 권위에 대한 욕망을 욕망의 형태로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자 그 실천"[21]으로 기능

17) 「줄광대」의 '나', 「매잡이」의 민 형, 「문턱」의 '나' 등은 이청준의 소설에서 꾸준히 제시되는 '소설을 쓰지 못한 소설가, 또는 소설가 지망생'의 인물이다. 「병신과 머저리」는 '나(동생)'의 서사 속에 형의 소설이 중층적으로 제시되며, '나'는 형의 소설을 대필하나 이는 실패로 끝이 난다. 이외에도 대필 행위를 하는 인물들로 「가수」의 주영훈과 허순, 「엑스트러」의 '나', 『언어사회학서설』의 윤지옥, 「새와 나무」의 시장이, 「문턱」의 반형준 등이 있다. 이윤옥, 「텍스트의 변모와 상호 관계」, 『이청준 전집1 병신과 머저리』, 문학과지성사, 2018, 384-385면, 402면. 이외에도 「조율사」와 「지배의 해방」에서 소설가인 '나'는 '쓰기'에 대한 이청준의 고민과 의지를 드러낸다.

18) 이청준, 「복수와 용서의 변증법-김치수와의 대화」, 『말없음표의 속말들』, 나남, 1986, 245면.

19) 본고에서 개념화하는 이청준적 '쓰기'란, 소설 속 인물들의 '글을 쓰는 행위'와 그 결과로 제시되는 '글'을 문제 삼는 개념이다. 이때 '삽입서사'나 '격자소설'이라는 기존의 용어 대신 ('쓰다'라는 '동사'에 명사파생접미사 '-기'가 붙은) '쓰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완료된 결과로서 소설의 형식적 특성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완결불가능성을 내포하는 계속된 실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20) 권오룡, 「해설 이카루스의 꿈」, 『이청준 전집1 병신과 머저리』, 앞의 책, 349면.

21) 권오룡, 위의 글, 357면.

함으로써 인물을 무언가를 욕망하는 존재로, 즉 주체성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 숨 쉬게 한다. 중요한 것은 이 글쓰기의 과정이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는 방식이라는 점으로, 이는 욕망이 "실현되지 않기에 계속 욕망으로 존재하는 것이 승인"[22]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병신과 머저리」에서 '형'의 무의식에는 살해의 욕망이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형이 그러한 욕망을 지니는 것은, 그것이 욕망인 한 실현되지 않은 것이기에, 자신에게 수술을 받은 뒤 죽은 소녀에 대한 고의적 살해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때 형이 쓴 소설에서 그가 '관모'를 죽이는 것은 소설 속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살해에 대해, 형으로 하여금 그 욕망을 놓지 못하게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23] 즉 '글'이란 이청준의 인물들이 욕망의 보존을 통해 스스로의 주체성을 지켜내는 핵심 장치가 되는 것이다.[24] 그리고 형의 소설에 담긴 욕망이 동생의 의식에 개입되는 것은 '대화적 관계'를 통한 의식의 형성 과정을 보여준다.

---

22) 권오룡, 위의 글, 347면.

23) 형의 소설에서 그가 관모를 죽이는 것에 대해, 형의 살해 욕망이 실현된 것이라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이 관모와 마주친 뒤 끝내 자신의 소설을 불태워버리는 것은 그의 글쓰기가 욕망의 실현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소설 속 소설(즉 형의 소설)에서 형이 관모를 살해하는 것은 오히려 소설 속 현실에서 관모에 대한 형의 살해 욕망을 보존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24) 소설 속 인물들의 '쓰기'가 주체성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은 이청준의 작품세계에 대한 논의를 벗어나, 해체주의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시체(기표)와 지시대상(기의)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인 것이 아닌 임의적인 것임에 주목하는 폴 드 만에게 있어 오독의 문제는 언어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독서의 과정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말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쓰기' 또한 실패를 반복하는 과정일진데, 이 실패가 오히려 계속해서 읽고 쓰는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체주의적 관점을 통해 '쓰기'의 주체적 의지가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폴 드 만의 논의에 대해서는 폴 드 만, 이창남 옮김, 『독서의 알레고리』, 문학과지성사, 2017. 참조.

> 그 이야기 가운데의 누가 나의 화폭에서 재생되기라도 할 듯 그것의 결말을 보지 않고는, 형이 김 일병을 죽이기 전에는, 나의 일을 할 수가 없었다. (…) 언제나 망설이기만 할 뿐 한번도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고 남의 행동의 결과나 주워 모아다 자기 고민거리로 삼는 기막힌 인텔리였다. 자기 실수만이 아닌 소녀의 사건을 자기 것으로 고민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양심을 확인하려 하였다. 그리고 자신을 확인하고 새로운 삶의 힘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 "도대체 형이란 자는……"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욕설은 모조리 쏟아놓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꼭 형을 두고 하는 생각만은 아니었다. 그저 욕을 하고 싶다는 것, 욕할 생각이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견뎌 배길 수 없을 듯한 노여움 같은 것이 속에서 부글거렸다.[25]

'나'는 형의 소설로부터 그의 숨겨진 욕망을 발견하고 누군가의 죽음에서 탈출의 힘을 얻고자 하는 그의 비겁한 양심에 분노한다. 그러나 그 분노는 스스로를 향한 노여움으로 되돌아온다. 이는 자신이 그토록 분노하는 이유가 그 스스로가 형보다도 지독히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부를 지닌, 어쩌면 처음부터 환부다운 환부가 없는"[26] 환자이기 때문임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형이 김 일병을 죽이는 것으로 소설을 끝내버리면서 그 자신의 욕망을 지속시킨다. 이처럼 '쓰기'가 지니는 대화적 의미에 주목해볼 때, 동생의 의식에 타자로서의 형의 욕망이 보존된 상태로 개입되어 그를 추궁한다는 것이 발견된다. 이로써 한 명의 인물은 작자에 의해 미리부터 완성된 대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인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제나 형성의 과정 중에 있음으로써 작자의 형상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주체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처럼 욕망의 보존수단으로서의 '글'이 의식을 지닌 인물들 사이의 다

25) 이청준, 앞의 책, 2018, 195-196면.
26) 이청준, 위의 책, 200면.

성악적 조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틀어, 이를 바흐찐의 '대화' 혹은 '대화적 관계'와 같은 층위에 놓이는 이청준적 '쓰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청준의 인물들은 이 '쓰기'를 통해 세계와 대화적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의식을 구체화하고, 이로써 완결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 타자와 욕망의 조화를 연주해낸다. 나아가 이 '쓰기'를 통해 형성된 세계에서는 이데아를 지닌 여러 주체들 사이의 극적인 대화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그것은 이청준으로 하여금 인물들이 스스로를 열어보이도록 계속해서 추궁하고 도발할 것을 요구하는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3. 『당신들의 천국』에서 드러나는 '쓰기'에 대한 '미학적' 검토

1) 타자의 의지의 대화적 침투와 주체의 형성

『당신들의 천국』은 나환자들의 공간인 소록도에 '조백헌'이라는 인물이 병원 원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그곳에 낙토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의 꿈이 전개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 볼 때 조 원장을 중심인물로 하여 그와 세계의 대립을 다루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그 내부적인 차원에서 『당신들의 천국』은 하나의 구체적인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는 여러 인물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 구성된다. 이때 '쓰기'는 그러한 갈등의 연주를 더욱 격렬하게 만드는 장치로 드러나며, 인물들의 의식은 이를 통해 연결되고 구성되면서 구체적으로 육화된 이데아로서 발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최종적으로 자유와 사랑의 화합이란 생활적 실천의 반복만을 통해 가능하다는 이데아를, 그 자체로 소설 형식의 실천이 되게 함으로써 보여준다.

소설의 다성악을 더욱 극적이게 하는 목소리로 먼저 '이상욱'이라는 인물에 주목해볼 수 있다. 병원의 보건과장을 맡고 있는 그는 섬에서 행해

진 '배반의 역사'를 몸에 새겨둔 듯 경계하며 조 원장의 낙토 건설의 꿈에 대해 '동상'의 문제를 끊임없이 환기한다. 이때 그의 이데아는 당사자로서의 그가 배제된 채 작자의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그 자신이 세계와의 대화적 관계를 통해 펼쳐 보이는 의식으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그가 지닌 육화된 목소리는 조 원장의 의식을 열어젖히는 데까지 힘을 뻗치는데, 이상욱이 이처럼 능동적 주체로서 기능하는 것은 그의 존재가 '쓰기'를 통해 구축되는 것으로부터 이해해볼 수 있다.

이상욱은 섬의 자유와 사랑을 상징하는 동시에 처절한 배반의 역사를 선천적인 운명으로 지니는 존재이다. 그는 단종 수술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원생들 간의 이성 결합이 가능한 섬에서 자유로운 사랑을 통해 잉태된 생명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인 이순구는 아들의 출생을 들켜선 안 된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함께 비밀을 지켜준 주민들을 배반하고 만다. 그는 섬 병원의 네 번째 원장이었던 주정수의 동상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 원생들에 대한 억압과 탈취를 강화하고 끝내는 한 원생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것이 '섬 병원이 생긴 이래 최초로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으며 '비극의 시초'가 되는 이상욱의 운명인 것이다.

이때 소설의 '미학적' 대응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이상욱의 서사가 '한민'이라는 청년에 의해 쓰인 소설로 제시되며 그 자신과 대화적 관계에 놓인다는 것이다. 이상욱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섬을 탈출했었다. 그리고 병원 직원으로서 섬에 돌아온 그는 탈출의 소망이 간절한 원생 한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 섬 소년의 탈출 사고에 관한 이야기'로 들려준다. 그런데 한민은 그 소년의 이야기에 이순구가 원생들로부터 '노루 사냥'을 당한 사건, 즉 그의 배반의 역사를 보여주는 서사를 추가한다. 섬의 배반자를 섬을 탈출한 소년의 아버지로 설정해둔 것이다. 여기에는 소설을 구성하는 한민의 작가적 의지가 개입된 것으로, 이 의지는 이상욱의 의식에 대화적으로 침투한다.

> 한민의 이야기는 거기서 비로소 그 유명한 '노루 사냥 사건'을 소개하기 시작한다.
>
> 하지만 상욱은 이제 그만 원고를 덮고 말았다. 더 이상 이야기를 읽어나가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
> 이상한 일이었다. 상욱이 한민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다만 소년의 탈출에 관한 것뿐이었다. 노루 사냥 사건의 주인공이 소년의 아비라는 관계는 말로 일러준 일이 없었다. 한데도 한민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노루 사냥 사건의 주인공 이순구의 내력에서부터 소년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었다. (…) 하지만 그는 이제 그만 기가 질리고 말았다. 섬에서는 누구나 남의 내력을 들추는 일이 없었다. 내력을 알고 있다 해도 모른 척 눈감아주는 것이 섬사람들의 오랜 불문율이었다.[27]

그가 섬을 다시 탈출할 때까지 '대부분의 섬사람들이 아직도 상욱의 내력을 잘 모르고 있'[28]었다는 것과 '노루 사냥 사건의 주인공이 소년의 아비라는 관계는 말로 일러준 일이 없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민이 만들어낸 서사에는 허구를 조작해내는 그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한민이 이상욱의 내력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려 하나의 진실에 가닿고자 쓰였다는 점에서 그의 의지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29] 중요한 것은 상욱의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타자의 의지가 침투해 있다는 것이며, 이청준의 소설은 이와 같은 '쓰기'로 구성된 인물을 통해 '전체가 극도로 대화적'인 조화

27)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열림원, 2000, 143-144면.

28) 이청준, 위의 책, 323면.

29) '믿게 만들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소설의 본질적 자질이라 정의한 마르트 로베르는 소설이 현실과 맞닿게 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현실을 재현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과 자아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내포하기 때문이라 말한다. 이처럼 소설의 재현이 목적으로 하는 것을 밝히는 대신 재현을 가능케 하는 의지에 주목할 때, 문학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 마르트 로베르, 김치수 옮김,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9. 참조.

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욱은 한민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두려워 그의 원고를 덮어버리고 만다. 이는 자신의 내력이 다른 이들에게 들통 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동시에 자신에게 내재된 절망적인 진실을 스스로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그러나 소설 속 인물을 주체적 존재로서 바라보고자 할 때 더욱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후자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속에서 주인공이 누구이냐가 아니라, 우선 주인공에게 세계는 무엇이며 주인공은 주인공 자신에게 무엇인가라는 문제"[30]이기 때문이다. 즉 작자의 형상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물이 아닌 인물의 의식의 기능인 것으로, 이를 통해 작자가 소설 속에 끌어들이는 모든 객관적 특질들은 인물의 견고한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닌, 인물의 자기성찰의 객체이자 의식의 대상이 된다.[31]

이로써 아버지의 비극적 말로가 그에게 지니는 의미와, 섬의 배반에 대한 극도의 신경질적 반응을 오롯이 그로부터 분출되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상욱의 의식이 '쓰기'를 통해 구축되어 그가 이미 정해지고 고정된 대상이 아닌, 형성의 과정 중에 놓인 존재라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청준의 작품세계에서 '글'이 가지는 '욕망의 보존'이라는 의미와 관련지어 볼 때, 한민에 의해 쓰인 것이 상욱의 운명에 내재된 배반의 역사라는 것 또한 그를 주체적 존재로서 기능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그가 계속해서 대립의 구도를 형성하며 그 자신과 같은 능동적 주체를 호명함으로써 소설이 전개되게 하는 것은 이 배반의 역사로부터 비롯된 그의 의식이기 때문이다.

30) M.바흐찐, 앞의 책, 1988b, 70면.

31) 바흐찐은 인물의 주체성을 증명하는 의식의 문제에 있어 특히 '자의식'에 주목한다. "주인공을 만드는 예술적 주조음으로서 자의식은 주인공상의 다른 여러 특징과 동열(同列)에 놓여 있을 수 없다. 이 자의식은 그러한 특징을 자신의 소재로서 흡수하여, 그러한 특징이 주인공을 결정짓고 최종화시킬 수 있는 모든 힘을 박탈한다." M.바흐찐, 위의 책, 74면.

2) 주체적 존재들의 세계 확장과 폴리포니

"작가는 모든 것을 흡수하는 주인공의 의식에 오로지 하나의 객관적 세계—주인공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다른 의식들의 세계—만을 대립시킬 수 있다."[32] 타인의 의지와의 '살아있는 접촉'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주체가 된 이상욱은 이제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 주체를 호명한다. 그것은 상욱이 오로지 정상인이라는 타자의 시선에서 소록도를 나환자들의 천국으로 만들고자 했던 조 원장으로 하여금 믿음과 사랑이란 운명을 같이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한 것이다. 조 원장은 섬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섬의 자유와 그 자신의 사랑이라는 것이 배타적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며, 따라서 섬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찾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 날 느닷없이 날아온 "상욱의 편지 속에서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33] 깨닫게 된다. 이때 상욱으로 인한 조 원장의 변화가 그의 편지[34] '쓰기'를 통해 행해졌다는 것은 이청준 소설의 '쓰기'를 재고해보게 한다.

상욱이 조 원장에게 부친 편지는 그가 섬을 나간 지 5년 만에 마산 병원에 있는 조 원장에게 써 보낸 것과 7년 전 그가 섬을 나갈 때부터 이미 '써 지니고 다니던 것을 뒤늦게' 함께 동봉한 것 두 가지이다. 조 원장은 상욱이 나중에 쓴 편지로부터 자유와 사랑의 수수께끼에 대해 '공동 운명'

32) M.바흐찐, 위의 책, 73면.

33) 이청준, 앞의 책, 2000, 360면.

34) 바흐찐은 도스또예프스끼의 작품에 대한 분석에 있어 '서간체 형식을 '타자가 투영된 언설'에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제시한다. "편지는 원래 상대방 수신자의 입장에 민감하다. 편지는 대화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특정인을 향해 있고 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반응이나 대답을 고려에 넣고 있다. 이 부재의 상대를 계산한다는 일은 아무튼 피곤한 일이다. 도스또예프스끼에 있어서는 그러한 계산은 극히 긴장된 성격을 띠고 있다." M.바흐찐, 앞의 책, 1988b, 296면. 즉 편지는 단순히 발신자에게서 수신자에게로 전달되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타자의 응답을 '격렬하게 예기하는' 의식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개입되는 언설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병신과 머저리」에서 제시되는 '혜인'의 편지와 같이, 이청준의 소설 속 '편지'가 지니는 의미를 그 대화적 관계에 주목하여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라는 해답을 찾아낸다. 그러나 그는 상욱 또한 "자신이 그것을 말하고서도 이번에도 그 말의 뜻하는 바를, 그 공동 운명이라는 것이 이 섬의 자유와, 자유로써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짐이 없는 고질적인 퇴행 현상들과의 관계는 깊이 보지 못"[35]한 것이라 말한다. 즉 이상욱은 진정한 천국을 건설하는 일 앞에서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미결정성의 태도는 오히려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매순간 실천적 토대들의 마련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36], 이청준적 '글'이 욕망을 보존시키는 것과 겹쳐진다. 이로써 상욱의 편지는 그의 의식이 육화된 형식으로서의 글쓰기가 된다.

바흐찐은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의식이란 없으며, 하나의 의식은 한 인간의 전체를 나타내주는 것으로서 "두 개의 사고는 이미 두 사람이나 마찬가지"[37]라 보았다. 이는 그에게 있어 진정한 사유로서의 이데아라는 것이 육체를 지닌 구체적 인격 속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육화된 타자의 '목소리'와의 활기찬 접촉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바흐찐의 대화적 관계란 단순히 '언어'를 그 도구로 하는 것이 아닌, 고유한 인격을 지닌 개인들을 전제로 하여 복수의 의식들이 서로 마주하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청준의 '쓰기'는 이처럼 구체적 육체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바흐찐의 '의식'들이 육화된 형식 그대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 된다.

그의 '쓰기'가 지니는 이러한 역량은 소설이 독서의 불가능성을 포괄할 가능성을 탐색했던 폴 드 만의 논의를 참조하여 이해해볼 수 있다. 폴 드 만에게 있어 "모든 내러티브는 일차적으로 그 자신의 독서에 대한 알레고

35) 이청준, 위의 책, 420면.

36) 레비나스를 전공한 일본의 사상가 우치다 타츠루는 '망설임'을 명분과 실감 사이의 어긋남 속에서 그 사이를 연결 짓는, 윤리적이고 지적인 '성실한 태도'라 정의한 바 있다. 우치다 타츠루, 박동섭 옮김, 『망설임의 윤리학』, 서커스, 2020. 참조. 이와 같이 '망설임'은 미결정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윤리적·실천적 태도가 된다.

37) 바흐찐, 앞의 책, 1988b, 138면.

리"[38]라 말해진다. 이때 알레고리란 형상적 진술과 지시적 진술 사이에서 반복되는 잠재적 혼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서의 알레고리는 독서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소설은 "주제의 층위뿐만 아니라 형상화의 층위에서도 참된 이해의 불가능성을 주장"[39]함으로써 그 자체로 글쓰기와 독서의 알레고리가 된다. 다시 말해 소설은 필연적인 오독이라는 독서의 불가능성 그 자체를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자기반영적으로 주제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설 속 인물들의 '쓰기'에 의식이 육화되어 있다는 것은, 소설이 이처럼 주제와 형상화의 층위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과 같이, 인물들의 '쓰기' 또한 주체의 의식을 내용적으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형식을 통해서도 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욱의 편지는 그 형상화의 층위에서도 천국을 향한 망설임의 의식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편지는 욕망을 보존하는 '글'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층위에서 7년 동안 부쳐지지 못한 채 그 자체로 망설임의 속성[40]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의 의식이 육화된 '쓰기'라 할 수 있다. 천국에 가닿기 위한 희망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의 의식이 조 원장의 욕망을 보존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상욱의 편지가 하나의 이데아로서 조 원장의 의식을 형성하고 그와 접촉했기 때문일 것이다.

상욱이 편지를 통해 '쓰기'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소설 세계에 대한 작자의 임무를 경감시킨다. 이제 작자가 맡은 역할은 대상 자체에 내재된 독립성과 논리성을 그저 열어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41] 상욱의 목

38) 폴 드 만, 앞의 책, 112면.

39) 폴 드 만, 위의 책, 동일 면수.

40) "작품이 E의 표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예술 작품의 표현성을 논할 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며, 오히려 작품이 어떻게 E에 대해 표현적일 수 있는지, 다시 말해 E에 상응하는 표현적 속성을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내는 일이 주요한 과제가 된다." 강선아 외 4인, 「분석 미학: 무엇을, 어떻게」, 『미학』 84-4, 한국미학회, 2018, 108-109면.

41) 그러나 이를 작가의 역할을 수동적인 것으로 본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바흐찐은 다성악 소

소리는 한민의 '쓰기'가 그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 원장의 의식과 대화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각각이 서로 다른 울림을 유지하며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낸다. 방둑을 이루는 "흙과 돌멩이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이어져야"[42] 한다는 것을 깨달은 조 원장은 건강인과 환자 사이의 결혼을 성사시키며 생활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 운명을 실천한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은 결혼식을 위한 그의 축사로 끝을 맺는다. 이때 그의 축사 '쓰기'가 글의 형태가 아닌 '목소리로 발화'[43]되는 것과, 결혼식 행사장에서 완료되는 것이 아닌 그가 숙소에서 연습하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것을 통해 '쓰기'의 의미가 최종적으로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곧 축사에 담긴 조 원장의 의식은 그에게 육화된 것으로서의 구체적 이데아이며, 미완결성의 반복된 실천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 원장이라는 인물을 취재하고자 섬을 찾아온 '이정태' 기자와 상욱은 그의 '쓰기'를 함께 마주하게 되고, 이 기자는 감동을 받은 건지 비웃는 건지 알 수 없는 상욱의 미소를 보게 된다. 여기서 이청준에 의해 쓰인 소설은 끝이 나지만,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정태에 의해 '쓰기'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 암시된다. 이미 작자의 손을 벗어나 자유롭게 된 인물들은 욕망의 조화를 향한 그들의 연주를 계속할 것이다. 따라서 인물들이 만들어낸 선율은 더욱 극적인 조화를, 영원성으로 확장하는 다차원성의 폴리포니를 암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로써 실현되는 완결불가능성이야말로 바흐찐에게 있어 대화적

설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작가적 태도가 '긍정적인 적극성'을 지니는 것이라 말한다. "작가의 이 의식은 그 자신과 똑같이 무한하고 최종화되지 못한 타인의 동등한 의식을 목전에서 자신과 함께 느끼고 있다." 바흐찐, 앞의 책, 1988b, 101-102면.

42) 이청준, 앞의 책, 2000, 435면.

43) 바흐찐은 쏘쉬르의 추상적 객관주의 언어학을 비판하며 하나의 언어에는 언제나 타자의 언설이 개입되어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때 '목소리voice'와 '발화speech'는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쓰인 개념이다. 목소리는 신체화되어 인격적 접촉성을 띠는 말이며, 발화는 언어의 상호작용적 본성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대화적 관계'의 본질을 이룬다.

관계의 본질이자 이청준이 보여주는 미학적 응전이 된다. 자유와 사랑의 불가능한 화합 속에서, 오히려 그 불가능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추구될 수 있는 화합을 향하여 생활적 실천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존재를 능동적 주체이게 하는 완결불가능성의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청준은 60년대라는 난항을 거치며 발견한 이러한 가치를 직접 설파하는 대신, 그의 인물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들의 주체적 의식을 열어보이게 함으로써 하나의 완결불가능한 세계를 만들어냈다.

4. 나가며: 존재 조건으로서의 대화와 소설의 미학

이청준의 소설은 인물들의 갈등이 내용의 주축을 이루거나 격자소설, 혹은 중층구조의 형식을 보이는 것으로 유형화된다. 따라서 그의 소설은 바흐찐의 '대화' 개념을 핵심어로 하여 분석될 여지를 남긴다. 그러나 이때 이 '대화'라는 것을 단순히 인물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로 볼 경우 바흐찐이 그것을 통해 도달하고자 했던 소설의 새로운 지평은 가닿을 수 없는 것이 된다. 바흐찐은 소설의 내용이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화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곧 소설이 그 내용을 통해 외부로부터 정해지고 강요된 어떤 진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작자의 손을 벗어난 자유로운 인물들에 의해 형성되는 과정 중에 놓인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인물들에게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흐찐의 '대화'로, 본고에서는 그것이 가지는 힘을 충실히 사유하고자 그의 '대화'가 존재 조건 그 자체임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소설 속 인물의 '의식'을 미리 주어지거나 단독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닌, 대화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둘 때, 인물은 타자와의 갈등을 반복하며 조화를 이루는 미결정성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주체로서의 인물은 내재적 논리성을 지니며 작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세상을 구성한다

는 점에서 작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의식을 추궁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청준의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쓰기'에 대한 새로운 의미화가 가능해진다. 그의 소설에서 인물이나 형식을 통해 작동하는 '쓰기'는 인물의 욕망을 보존하는 것이면서 그를 둘러싼 세계의 의식을 구성하는 장치가 된다. 따라서 이는 바흐찐의 '대화'와 같은 층위에 놓이는 것으로서 소설 속의 인물로 하여금 완결불가능성의 본질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쓰기'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강조는 『당신들의 천국』에서 소설의 내재적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을 포착하게 한다. '쓰기'에 의해 구체적인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되는 인물들은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는 다른 주체들을 요구하며, 이로써 다층성이 끝없이 확장되는 폴리포니를 이룬다. 『당신들의 천국』이 또 다른 '쓰기'를 예고하며 끝나는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심장한 것이 된다. 결국 1960년대부터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며 현실에 대한 문학적 응전을 고민했던 이청준에게 있어, 그가 도달한 하나의 지점은 완결불가능성으로 인한 끝없는 조화에의 추구, 즉 조 원장이 매순간의 갈등 속에서 행하는 생활적 실천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하나의 구체적 이데아이자 능동적 주체로서 기능하는 인물들에 의해 소설의 내적 실재를 이루는 것이 된다. 이로써 소설이 현실이나 작가의 의지에 대한 반영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의 내재적 운동성을 지니며 현실에 가닿을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열림원, 2000.

M.바흐찐, 김근식 옮김, 『도스또예프스끼 詩學: 도스또예프스끼 창작의 제문제』, 정음사, 1988b.

2. 단행본

이청준, 『말없음표의 속말들』, 나남, 1986.

_____, 『이청준 전집1 병신과 머저리』, 문학과지성사, 2018.

우치다 타츠루, 박동섭 옮김, 『망설임의 윤리학』, 서커스, 2020.

마르트 로베르, 김치수 옮김,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9.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옮김, 『해방된 관객』, 현실문화, 2016.

폴 드 만, 이창남 옮김, 『독서의 알레고리』, 문학과지성사, 2017.

M.바흐찐, 전승희 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a.

3. 논문

강선아 외4인, 「분석 미학: 무엇을, 어떻게」, 『미학』 84-4, 한국미학회, 2018, 91-155면.

김근호, 「이청준 소설 『당신들의 천국』의 소통 윤리」, 『구보학보』 13집, 구보학회, 2015, 177-205면.

김소륜, 「이청준 소설과 '정동(affect)'의 글쓰기-198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94권, 국제어문학회, 2022, 9-29면.

김종현, 「메를로 퐁티의 몸과 세계 그리고 타자」, 『범한철학』 제30집, 범한철학회, 2003, 309-336면.

박다솜, 「'대화 불가능성'을 표지하는 대화의 서사적 가능성-이청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예술』 45집, 한국문학과 예술, 2023, 45-69면.

이현영,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서사전략 연구-삽입서사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9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3, 99-125면.

임환모, 「이청준 소설의 알레고리적 욕망-『당신들의 천국』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93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1, 89-119면.

조강석, 「1960년대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시민적 윤리와 대중적 욕망의 교환」, 『현대문학의 연구』 50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7-37면.

<Abstract>

Lee Chung-joon's “Writing” as a Dialogic Consciousness and Novel Aesthetics
−with a focus on “Your heaven”

Lee, Seong-a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ad the aesthetic response in Lee Cheong-jun's『Your Heaven』by paying attention to Bakhtin's ‘dialogue’. Dialogue means the process of forming the consciousness of existence. When look like this, the novel becomes a polyphony in which inclusive subjects are in harmony.

Lee Cheong-jun's ‘writing’ can be related to this concept of dialogue. For him, ‘writing’ is a means of composing interaction of consciousness. In『Your Heaven』, characters become an active subject through this ‘writing’.『Your Heaven』shows as the intrinsic formation process of the novel that only repetitive living practice is a way to realize freedom and love.

Key words: Mikhail Bakhtin, dialogic consciousness, Lee Cheong-jun, writing, Your heaven

투 고 일 : 2023년 11월 6일 심 사 일 : 2023년 12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3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3년 12월 22일